

그 어딘가의 모호한 의식

며칠 전 PC에서 지도보기로 여행을 해본 적이 있다. 경주보문단지, 월출산, 한라산도 보고, 한 때 내 작업실이 있던 뉴욕의 소호 건물, 전시회 때 거닐었던 런던과 리버풀의 거리, 그리고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율리시즈의 무대인 아일랜드의 더블린도 프랑스의 파리도 돌아다녀보았다. 참으로 세상이 달라졌다. 비록 이 거리들의 사진이 몇 년이란 시간을 경과했겠지만 책상에 앉아서 혹은 스마트폰으로 세계를 날아다닐 수 있으니 얼마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다.

작년에 고향에 들렀다가 어린 시절에 뛰고 놀았던 옛 동네를 찾았었는데 내가 살던 한옥은 사라지고 커다란 빌딩이 들어섰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뒷골목의 넓은 공터도 사라져 없어지고, 다만 비좁은 골목길 한 두개만 남아 옛 기억을 더듬을 수가 있었다. 어렸을 때는 상당히 넓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있던 골목이 이렇듯 좁았다니 믿기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잠자리를 잡으러 다니던 연못가의 건들바위는 초라한 바윗덩이에 지나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옛날 이 바위는 키가 커서 바람이 거세게 불면 흔들거린다고 건들바위로 불리었고 내 기억으론 바위위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밑에서 보면 까마득했었던 것이다.

70년대 중반에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 위 어느 호텔에 4개월여 머문 적이 있었다. 언덕아래 빠갈이란 거리는 화가 로트랙과 더불어 이름난 물랭루즈, 휘황찬란한 네온들과 늘어선 환락의 가게들, 손님들을 홀리는 술집들로 파리의 치부이면서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밤낮없이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곳이다. 30여 년이 지난 뒤 찾아본 이 거리는 쓸렁하고 황량해 보였다.

80년대 중반에는 뉴욕에서 살면서 한동안 다운타운의 웨스트 14번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 거리는 축산물의 집산지다. 지금도 뉴욕에서 소비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이곳으로부터 매일매일 신속하게 공급되고 있다. 근방에는 200년 이상 역사를 자랑하는 스테이크 식당도 있다. 디자인 사무실 밖으로 따가운 여름 햇살 아래 게이들이 서성거리던 모습, 매일 점심을 먹던 이탈리아 식당, 주인은 한국 사람을 보면 누구나 미스터 문이라고 부르던 호인이었지만 근년에 그 모습들은

모두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건물, 낯선 거리로 변해 있었다.

지금 나는 20년째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의 산 속에서 작업을 하며 지내고 있다. 홀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어서 주위를 경계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세상과 떨어져 있는 기분이어서 신경이 많이 풀어져 있는것 같다. 그래서인지 마음은 항상 멍한 상태이다.

서재의 창 밖으로 숲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어린 시절의 옛 동네, 더블린, 파리, 뉴욕을 머리 속에 떠올린다. 내가 떠올린 당시의 거리들, 모습들은 당시의 그 누가 거기를 떠올려도 같을 수가 없을 것이다. 멍한 의식 속에 순간적으로 시공을 넘는 기억들은 PC나 스마트폰 보다 비교할 수없이 빠른 속도로 장면들이 오간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것만을 지속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의식이 쉴 틈 없이 어딘가로 헤매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빛의 속도가 아닌가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헤아릴 수 없이 신비한 것이고 찬란할 수 가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 우주가 10차원 혹은 11차원으로 되어있다는 물리학자들이 옳다면 추측이지만 내 주변의 영역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미세한 이른바 말려있는 차원들이 있다면 놀랍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들이 우리들의 의식과 교류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삶의 패턴을 크게 바꿔가야 할 것이다. 과학의 빠른 발전을 후세를 위해서라도 성급하게 기대한다.

2013.

이강소